



## 학생 문화의 성격과 대학의 역할

김 광 응 | 숙명여대 학생생활상담소장

### I. 서론

대학생 문화란 무엇을 일컫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대학생 문화를 찾을 수 있을까?

취업이나 각종 고시를 위해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대학생 문화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나 신입생 OT, 개강 파티, MT, 동아리 활동 등에서 대학생 문화를 읽어낼 수 있을까? 한충련, 노동문제, 등록금 인상 반대 등 현실 참여나 학내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장에서 대학생 문화를 찾아보아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어디서나 말썽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강의실 드나들며 학점관리에 신경 쓰고 자기 몫 챙기면서 자신의 세계에만 빠져 있는 듯싶은 범생이들에게서 대학생 문화를 찾아야 할까?

아마 이상의 어느 것도 오늘날 우리의 대학생 문화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시원스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대학생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또한 그러한 다양성을 보는 눈들도 여유를 갖게 된 것일까? 아니면, 대학생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이나 행동 특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를 바람직한 모습이나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아야 할까?

원래 문화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의미한다. 문화를 규정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 행동 양식, 정서 등을 표출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문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치 개념을 배제하고 문화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이들은 보편적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가치로운 부분(가치판단의 기준에 문제가 있지만)에 대해서만 문화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대학생 문화라는 말은 분명히 대학생들이 특징적으로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가치관, 행동 양식, 정서가 담긴 삶의 모습을 지칭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가치 배제적 입장이지만, '대학생들에게 독특한' 또는 '대학생다운'이라는 제한이 어쩔 수 없이 가치 개입적 논의를 야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 장에 소개할 대학생 문화의 성격이라는 것부터 필자의 소망과 기대에 근거하여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있어야 할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글을 쓰기 전 학회 모임이나 주변에서 만난 교수들에게 "오늘날 대학생 문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거의 모든 교수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씩씩하게 내뱉는 대답은 "뭐 대학생 문화가 있나요?" 하

는 것이 고작이었다.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은 그들 나름의 참신하고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 내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짓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침 미국 대학에서 교육학 분야 교수 생활을 하는 분이 잠시 귀국하여 함께 담소하는 자리에서, "요즘 미국 대학생들의 문화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머리를 잠깐 정리하더니, "미국 대학생들은 요즘 두 가지 주제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 교내·외로 일감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 대한 참여의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고 토론하는 일 같아 보였다"는 것이 그분의 대답이었다. 물론 그 넓고 다양한 미국에서 또 그 많은 대학 중에서 한 대학의, 그것도 한 교수의 비공식적 관찰 결과이기 때문에 대표성이나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교수들과 다른 점은 미국 대학 교수는 '그래도 뭔가 곧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요즘 듣자 하니, 학생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대학들이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생활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대학생 문화를 생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 수준의 노력 같아 보인다.

이를 두고 필자에게 몇 가지 생각이 스쳐 갔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대학생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교수들이 할 말이 없어 보였다는 점을 실감나게 만드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문화가 오죽이나 없으면 대학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프로젝트로 다루고 있던 말인가? 아니면, 학생 문화가 왜곡되어 있어서 취하는 조치일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던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가련해 보였다. 참 문화란 인위적 조작물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 자신에 의해 형성·창조되는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

지가 없는데, 어처구니없는 과보호와 왜곡이 대학에서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섰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이 학생 문화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필자는, 우리 대학생들이 현재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확보하지 못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은 다음 두 가지로 주제를 제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대학생 문화는 이런 성격을 지녀야 하지 않겠나' 하는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도 많은 교수들의 생각을 수렴하여 정리해야 보다 타당할 것인 줄 알지만, 시간 등 모든 여건이 허락지 않아 이렇게 착실한 작업은 다음 과제로 두고자 한다. 다음의 주제는 '학생 문화를 위해서 대학이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의 단견만을 피력한다는 아쉬움은 일단 접어 두고, '학생 문화'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찾고 싶다.

## II. 대학생 문화의 성격

여기에서 대학생 문화의 성격이란 현재 대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추출된 것이라기보다 대학생 문화라면 '이래야 될 것 아닌가'라는 필자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 1. 참신과 창의

필자가 기대하는 대학생 문화의 진수는 우선 참신함과 창의에 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년들인 10대 문화의 연장선상에 머문다면 이는 대학생 문화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성인들의 뒤를 밟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대학생 문화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참신과 창의는 이렇게 연령 구분에 의한 독자성이나 창의성 말고도, 대학생들은 지성이라는 차원에서 독특함이 돋보여야 한다. 옹기종기 모이면 하는 손쉬운 놀이라고 하더라도 또 입만 열면 쏟아내는 유머와 해학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다운 지혜와 신선함이 넘쳐야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든 기업에서든 끊임없이 젊은 세대를 찾는 이유는 우선 그들의 참신함을 구하는 것이요, 구태를 벗고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성을 찾는 것이다. 대학생 문화는 바로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제 모양을 갖추는 것이다.

## 2. 자발성과 자율성

대학생은 신분이 학생이긴 하지만 인간 발달 과정으로 보거나 사회 통념으로 보거나 성인이다.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들의 삶은 자율성과 자발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과업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면 대학생 문화를 논할 근거가 없다. 자기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타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적 통제와 타율에 의한 삶이라면 구태여 그 문화를 거론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대학생 문화라면 그것은 그들의 순수한 자발성에 의한 삶의 방식 속에서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자기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규범에 의해 스스로 다스리는 자율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여

기에서 바로 대학생 문화를 위해 대학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즉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의 최대 보장이라는 명제와 대학의 요구와 기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학생 문화는 자발성과 자율성이 생명이라는 것만 분명히 확인하고, 대학의 요구와의 조화 문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3. 비판과 회의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회의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비판과 회의 그것은 곧 진리에 다다른 정도요 첩경이다.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학문적 노력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한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이 과업을 수행하는 중심체는 바로 대학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교수와 학생이다. 학생 문화의 어떤 요소도 학문이라는 본질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 학문을 놓아버리면 대학도 대학생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문화도 비판과 회의라는 학문의 본질 위에서 형성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예리하고 냉철한 비판 정신, 그리고 끝없이 이어져 가는 질문 속에서 지성의 문화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대쪽같은 자세로 참된 진리와 올바른 삶의 길을 잉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대학생 문화인 것이다.

예리한 관찰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쪽같은 기개로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은 대학생 문화 아니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병폐 중 하나인 학벌주의를

“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한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이 과업을 수행하는 중심체는 바로 대학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교수와 학생이다. 학생 문화의 어떤 요소도  
학문이라는 본질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 학문을 놓아 버리면  
대학도 대학생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타파하지는 사회 개혁적 기치를 내세우고 지난 4월 준비모임을 갖고 결성된 '학벌 없는 사회 전국 대학생 모임(antihakbul.org/wego)'은 대표적 예라 하겠다. 서울과 전북지역 40여 명이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올 2학기에는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전교학신문 2002년 5월 28일). 학벌주의라는 사회병리를 직시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의도와 노력에 모든 국민은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 방법론이 건강하고 기득권 집단이 이를 견제하게 수용한다면, 왜곡되어 있는 대학 입시의 병폐, 학벌주의에 뿌리를 둔 학연주의, 억지 서열화에 의한 부와 권력의 차등 분배 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다.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학과 대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정립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대학생 문화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벌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된 대학생 문화의 일면임이 분명하다.

#### 4. 토론과 이론화

토론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지성주의를 부르짖는 어떤 집단에서도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화 요소다. 따라서 토론은 대학의 생명이

다. 그것이 학문적 주제이든 또는 선택을 기다리는 사회적 주제이든 토론은 늘 대학과 함께 있어야 한다. 또 그곳이 강의실이든 캠퍼스 한쪽의 나무 그늘이든 토론의 불꽃을 피우는 곳에는 늘 심상함과 열기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토론은 대학생 문화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주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주제는 이념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지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토론은 학생문화의 꽃이라고 하겠다.

기업이나 비즈니스에도 토론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소아적 토론이다. 대학생들의 토론은 우리 모두를 위한 그야말로 인류 공영의 대의를 위한 토론이라는 데서 그 문화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토론은 이 주장과 저 주장이 단순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토론은 웅변이나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다. 참된 토론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과학적 지식과 건전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풍부한 토론은 그 주제에 관한 이론을 형성하게 만든다. 대학생들의 토론은 풍부하고도 확고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늘 이론화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토론을 대학생 문화의 꽃으로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 5. 역사성과 세계화

문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문화는 뿌리가 있고 맥락이 있다. 필자는 이것을 문화의 역사성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서 문화적 전통이라는 말이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문화가 역사성과 전통을 지님으로 인해서 문화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는 그 역사적 맥락 위에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뿌리와 전통이 없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문화의 역사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융화될 수 없거나 변질조차 어려운 우리 문화의 어떤 요소들(예컨대 情/恨 등)도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문화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대학생 문화도 역사성을 지녀야 한다. 아니, 지닐 수밖에 없다. 문화의 역사성은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무시한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역사성이 없는 문화는 힘이 없다.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 갈 뿐이다. 대학생 문화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사회를 개혁하는 힘을 가지려면 역사성을 살려야 한다.

대학생 문화가 역사성에 의해서 시간을 극복하듯 또한 대학생 문화는 세계화를 통해서 공간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란 각 문화가 독자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다른 문화와 교류하며 하나의 새로운 통합 문화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세계화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자기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다양한 다른 문화들과 교류를 해야 하며, 셋째,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새로운 통합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 3의 통합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는 자기 문

화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며, 다른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문화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의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생 문화가 공간을 극복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성 위에서 우리 대학생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른 여러 나라 대학생 문화와도 교류를 해야 한다. 생명력 있는 진지한 교류를 통해 우리는 결국 우리 대학생 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세계 문화 창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대학생의 보편적인 대학생 문화가 존재하듯 또한 각 대학 고유의 전통 대학생 문화도 존재하는 것이다. 대학 나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며 가치를 높이는 노력은 우리 대학생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문화적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6. 표현의 다양성과 승화

아름다움은 어떤 형태의 문화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모든 문화가 아름다움이라는 요소를 지닐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거나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으며, 아름다움은 어느 경우에도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대학생 문화는 특히 심상하고 발랄한 아름다움을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진취적 기상과 건강함이 넘쳐 젊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심상함은 대학생만이 연출할 수 있는 모습이다.

대학생 문화의 특징은 고식적이지 않은 데 있다. 내재된 본질은 동일하더라도 그 표현 양식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그 지체가 만인의 탄성을 자아낼 때 대학생 문화의 아름다움은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대학생 문화는 승화의 품격을 지녀야 한다. 승화는 사회 이상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최선의 기제다. 승화를 빼어 놓고 문화를 논하는 것은 문화를 육보이는 무지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승화는 문화의 건강성과 아름다움을 보장하는 열쇠다. 승화 없는 문화는 저질 문화를 양산하고 지성과 인격을 파괴하는 절망만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승화의 메커니즘을 발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통제보다 자기 통제가 승화의 기제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된다. 인간 발달 과정상 대학생 시기는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때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이 되어야 학습과 생활에서 자율과 자기 선택, 그리고 자기 통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전공과목 학습에서 과외를 받는 대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씩씩함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추태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우리는 대학생 문화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 7. 멋과 여유

대학생 문화는 멋이 있어야 한다. 멋이 있어야 즐길 수 있다. 하는 사람도 즐기고 보는 사람도 즐길 수 있어야 그 문화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학문이 여유 속에서 생기듯 대학생 문화도 여유 속에서 생긴다. 여유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듯 학생 문화의 멋도 여유로움 속에서 살핀다.

멋은 자연스럽게 유머와 어울린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유머를 경험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학자가 각박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때 참다운 학문을 하듯 대학생도 현실을 벗어나 이상과 멋의 세계에 머무를 수 있을 때 학생답다. 대학생 문화는

바로 이러한 여유와 멋과 유머로 엮여지고 수를 놓을 때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독특함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 Ⅲ. 대학의 역할

‘학생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대답은 대단히 까다로운 면이 있다. 우리들은 대학생들에게 자율과 창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의 역할이라는 명분이 자칫 학생 문화의 기본 원리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학의 역할이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학생 문화가 싹 틀 수 있는 생태적 조건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학교의 적극적 개입과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생 문화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학생 문화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또는 조작된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의 변은 다를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율과 자발성에 맡겨두면 자칫 이른바 불량 집단에 의해서 학생 문화가 오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는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서, 그것도 반체제적 비밀 결사의 지령에 의해 조정을 받는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회나 학생 활동이 지배받는다는 우려로 인하여 대학은 학생 문화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었다. 지금도 그러한 우려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아직도 자신이 없거나 소극적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넘어

서는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필자 나름의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학생들이 주도하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학생 문화의 창출과 발전을 위해서 그 주도권이 학생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그들의 자발성과 자율 그리고 그들의 요구와 정서가 생생하게 승화되는 문화만이 학생 문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주도권이 대학의 어떤 특정 정책이나 특정 교수들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이는 순수한 학생 문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 문화를 위해서 대학 행정가가 발의하거나 제안한 주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든지, 교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고 논의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못하다.

대학의 역할은 학생 문화에 대한 현실 조명과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학교가 제공하고 토론 자체는 학생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학부나 학과 단위 그리고 단과 대학 단위로 토론회를 갖고 이것이 성숙해지면 대학 전체로도 토론은 가능할 것이다. 교수나 대학 당국은 우선 학생들의 토론을 경청하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 대학이나 교수가 조금하듯 평가하거나 개입하려 든다면 이는 진정한 학생 문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한두 번의 토론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번 인내를 가지고 우선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생들은 학생 문화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학생 문화에 대한 결핍과 책임감이 생길 것이다. 학생 문화에 대한 책임이 학생 자신들에게 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있는가를 깨달아야만 그들에게 학생 문화에 대한 자기 통제감이 발달될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과 이를 존중하는 대학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학생 문화를 창출하는 첩경이고 또 정도(正道)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판과 토론을 외면하는 대학은 아름다운 문화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 비판과 토론은 그 자체가 대학의 고유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 2. 업적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근래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업적주의를 제일 목표로 공식화하는 경향이 있다. 업적주의는 자연스럽게 경영제일주의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대학을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학은 사회의 큰그릇이다. 사회 이상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학문의 세계를 구축하는 책무를 지니고 탄생하였다. 이러한 대학의 본질이 지나친 업적주의에 의해 훼손되고 심지어는 기업화하고 있는 것이다.

극히 현실적인 단순한 업적주의에 몰두하게 되면 대학은 마치 사설 학원과 같이 되어 버리고 아름다운 학생 문화란 존재할 수가 없다. 대학은 대학의 본질과 논리가 있다. 이는 부정될 수 없는 진리다.

학생은 등록금을 내는 고객으로, 교수는 돈을 벌어들이는 도구로, 아니면 대학 이름이나 빛나게 하는 브랜드 형성의 수단으로 여기는 풍토가 어느 때보다 만연해 있다. 겉으로는 이러한 비난을 떨쩍떠며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욱 서글픈 것은 이러한 풍조가 너무 정당화되어 있어서 전혀 잘못된 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러니 건강한 대학 문화나 학생 문화는 존재할 여지가 별로 없다.

“

대학의 역한은 학생 문화에 대한 현실 조명과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학교가 제공하고 토론 자체는 학생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학부나 학과 단위 그리고 단과 대학 단위로  
 토론회를 갖고 이것이 성숙해지면 대학 전체로도 토론은 가능할 것이다.

”

대학은 학문,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본질적 요소들이 목적으로 존중받을 때 대학 문화와 학생 문화는 자연스럽게 꽃을 피울 것이다.

### 3.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관료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대학 사회조차 관료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장이 제왕처럼 군림해 있기도 하고 보직교수는 권위주의의 노예가 되어 재단이나 행정 책임자의 주구 노릇을 하기 일쑤다. 그뿐인가, 일부 행정 직원들은 학생에 대해서, 심지어는 조교와 교수에게까지 관료 행세를 하며 그 조그만 권력을 휘둘러 대기도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거의 그 대학 졸업생들이 행정직원이 되기 때문에 조교와 학생들 대하기를 하찮게 여긴다는 불만이 대단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학생들을 대하는 교수조차 권위주의적이라면 그 집안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고 하겠다.

이렇게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대학 풍토에서 어찌 고귀한 가치를 지닌 학생 문화가 싹트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불만과 냉소, 적개심과 증오만을 양산하는 곳에서 마음을 붙이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 문화를 원한다면 말로만 문화를 들추지 말고, 대학

은 윗물에서부터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 내던져야 할 것이다.

### 4. 획일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민주주의 어념은 개인과 개성이 존중되고 다양성과 차이가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대학 사회에서조차 획일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학은 행정 편의와 예산의 효율을 위하여, 또 교수나 학생을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로 개성과 다양성이 무시되고 규격화와 획일화로 달려가는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나 구호에만 그치거나 오히려 교묘하게 잔재주를 부리는 기술은 더는 것 같기도 하다.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감독관청에서부터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당근을 가지고 대학의 학사운영과 행정을 통제하고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 하고 있다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재론할 여지가 없다. 말 그대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여유와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대학 문화와 학생 문화가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감독청의 이러한 행태를 핑계삼



거나 편승하여 획일주의를 즐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학이 튼튼하고 건강한 체질을 키우고 아름다운 학생 문화를 창출해 하려면 과감하게 획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5. 무분별한 상대평가 일변도의 풍토와 평가 만능주의를 바꿔야 한다

교육에서 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평가를 통해서 교육목표 달성도를 가늠하고 다음 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보다 나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학생이나 교수 모두에게 중요한 과업이다.

또한 평가는 경쟁이라는 자유주의/지본주의 논리를 실현시키는 덕목을 심어 주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는 교육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것의 역기능과 부산물은 학생 문화를 시들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획일적으로 상대평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 원래 상대평가는 대상자들을 단차원에서 강제 서열화시켜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일정한 소수를 선발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따라서 대학처럼 일단 선발된 집단에게 그들 나름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능력과 분화된 전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명문 대학에서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상대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 입시 때와 같은 점수 지옥을 경험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것은 교수들이고, '상대평가

제도라서 어쩔 수 없다'는 교수답지도 못하고 대학 교육답지도 못한 대답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도 개성적으로 학습하는 많은 학생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기 일쑤다. 교수와 학생은 학문적 동지여야 하며, 마음껏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풍토를 만들 수 있는 자유와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학 문화와 학생 문화가 싹트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대학은 평가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데 있다. 많은 대학 앞이나 심지어는 고속도로변까지 '○○대학 ○○평가 최우수대학', '대학 개혁 우수 대학' 등 어린애들 장난같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을 정도로 평가에 도취되어 있다. 이런 대학들은 대체로 신설 대학이거나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대학들이지만 대학문화답지 못하다. 교수들 또한 별의별 항목을 다 만들어 놓고 교수평가 자료를 정리하고 자기가 잘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 아까운 시간을 버려야 하는 모습 속에서 무슨 멋진 대학 문화가 창출되었는가?

우리나라 대학이 대학다워지고 대학다워진 대학에서 문화다운 학생 문화가 꽃을 피우려면 우리의 평가 문화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6.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학은 대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재단이나 행정 책임자의 명예와 공명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대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학문과 연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교수와 학생이다. 그래서 대학은 이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 문화는 바로 이 가치가 실현되는 한 장이다.

대학의 가치가 실현되는 장은 다양하지만 학생 문화도 그 중요한 한 장이며, 때로는 학생 문화가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 이념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 문화의 건전한 창출을 위해 대학이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학생을 가치 실현의 목적으로 삼고 자식을 격려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원한다면 학생 문화는 크게 날개를 펴고 비상할 것이다.

#### IV. 결론

학생 문화는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대학은 어떤 생태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가를 몇 가지 논의하였다. 필자의 논조가 일부 현실 비판적인 경향이 두드러져, 학생 문화의 현실이 아주 암담한 것처럼 비쳐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학생 문화는 그 암담한 속에서도 살아 있다. 근래 신문에 보도된 몇 가지 자료만 보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지난 4월 말부터 기독교 대학연합 동아리인 'MI(Mission International)'가 H대 등 4개 대학 동아리를 중심으로 펴온 '시험 때 컨닝 않기' 서명 운동은 그 한 예다. 이 운동은 "사회에 부정 부패가 판치는 것은 대학생들이 부정 부패에 대해 무감각해진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 이들 학생들은 이 운동을 '아름다운 시작(BCM : Beautiful Challenge Movement)' ([www.bcm.or.kr](http://www.bcm.or.kr))이라 이름짓고 '사회의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해 학생들부터 부정 행위를 하지 말자'는 사회적 책임감과 대학생들의 잘못된 관행이 연결되어 창출된 학생 문화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5월 중에 개최한 축제에서도,

일부에서는 술을 팔고 술을 마시는 음주 행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사회개혁과 학생들의 재미가 조화된 축제 문화를 꽃피운 경우도 있었다. S대에서는 자기 컵을 가져오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료수를 제공하는 생태 카페가 열려 환경보호의식을 심어 주고, '장애인 체험 한마당'을 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통합을 학습하고 상징화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 것은 눈길을 끄는 학생 문화의 단편이었다. K대의 경우는 정치경제학연구회의 '장애인권 주점', 환경연구회의 '반핵 주점', 경제학과 학생들의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주점' 등 사회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그 수익금을 사회단체에 전달하는 건강한 모습을 담았다. 그밖에도 또 다른 K대에서는 '여성/인권 영화제'를 개최하고, E대에서는 대학 주변 지역사회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그 거리에서 '전쟁에 의해 억압받는 인권, 고문에 의해 억압받는 인권, 평화를 위한 외침' 등을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소식은 우리의 학생 문화가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하겠다. 다만 대학인 모두가 학생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생태적 조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

#### 김광웅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아동학회 회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숙명여대 가정·아동학부 교수로서 학생생활상담 소장 및 상담심리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 요인』, 『청소년문화 : 변화와 연속』, 『청소년문화 : 국제비교연구』외 다수가 있다.